

한국에서 가장 큰 축제는 역시 추석이라고 말할수 있다.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성 기후라서 모든 만물이 결실을 맺는 계절인 가을을 최고의 계절로 여기며 음력 8월 15일을 ‘추석’이라 하며 가장 커다란 국가적 행사라고 본다. 추석연휴는 대개 3-4일의 연휴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교통전쟁을 치루기도 한다. 타지에서 각각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 차례상에 올린 송편을 빗고, 여러 가지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든다. 추석날 아침이 되면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요즘에는 명절이나 행사에만 입는 한복을 입고, 차례상을 차린다. 그 해의 햇과일과 나물, 햇곡식으로 지은 밥, 떡등을 차례상에 올리고 조상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낸다. 차례가 끝나면 가족들이 둘러앉아 음복을 하며 답소한다. 식후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음식을 싸들고, 돌아가신 조부모, 혹은 부모님의 산소에 성묘를 하러간다. 화장을 하는 외국과 달리 매장을 하는 한국에서는 설날, 추석, 한식등 명절에는 조상님의 묘에 성묘를 하는 풍습이 있다. 여름내 자란 산소주변의 잡초등을 뽑고 정돈도 함께 하는 기회도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조상숭배를 잘 해야 후손이 잘 된다는 설이 전해져 내려오기에 조상을 부모님만큼 잘 섬긴다.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지만 그해의 풍년을 축하하는 한국전통의 민속놀이인 ‘농악놀이’를 지방시골등지에서는 행하여지고 있다. 팽과리, 북, 징, 장구등 악기를 두드리며 온 동네를 신나게 돌며 즐거워한다. 추석날 밤이 되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달맞이’ 행사도 갖는다. 흰하게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여자들은 한복을 곱게 입고 둥그렇게 원을 돌며 ‘강강술래’라는 놀이도 남자들은 일본의 스모와 비슷한 ‘씨름’을 하고 지낸다.